

민주 “乙위한 정당되겠다”...민생행보 ‘시동’

당 지도부 서울 망원시장서 최고위원회의

시민들 “국민속에 민주당은 없었다” 쓴소리

민주당이 8일 ‘을(乙) 위한 정당’을 자임하며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4월 임시국회를 뒤로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 구성구석을 누비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 이념논쟁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국민의 생활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해답을 찾겠다는 정책혁신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그 첫 화두를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로 잡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제동으로 일부 경제민주화 입법이 무산된 점을 환기시켜 ‘서민·중산층 정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한마디로 을(乙)을 위한 정당”이라며 “을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 국민연금이 남양유업 지분의 5.02%를 투자했다며 남양유업 지분투자 철회를 촉구하며 “생활 정의가 거리와 골목에서 이뤄지도록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대기업의 횡포와 ‘슈퍼 갑’의 고압적 태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고충 호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민변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몇몇 의원들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열심히 도왔으나 국민이 느끼기에 민주당은 없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태연 회장은 “민주당의 중소기업 정책 지원 강도가 약하다”며 당내 중소기업위원회 상설기구화를 주문했다.

이에 김 대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프랜차이즈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회의 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예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아현 실버문화센터를 방문,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현장 최고위를 늘려 등 당 운영과 조직 자체를 현장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한길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지난해 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5·4 정당대회가 ‘친노(친노무현)·주류와 비주류 간 극한 대결’ 속에 치러진 만큼, 비주류를 대표하는 김 대표와 친노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문 의원의 이번 만남이 당내 계파간 화학적 결합의 촉매가 될지 주목된다.

배석자 없이 이뤄진 회동이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두 사람이 당직 인선과 전대 과정에서 빚어진 계파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8일 오전 서울 망원시장 상인회에서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상인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 시대 새 도전’

새누리 시장 디지털정당당 전하진 의원 초청 주제 강연

새누리당 광주시장 디지털정당위원회는 9일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시 분당구 을)을 초청,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광주지역 IT·소프트웨어 기업 대표, 지역 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남구 송하동 광주CGI센터 3층 영상사실에서 열린다.

전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광주지역 IT·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스마트 시대에서의 인제상과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편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원내대표 후보 對與관계 ‘3인 3색’

김동철 “강성 민주 만들겠다”

우윤근 “진정성 바탕으로 투쟁”

전병헌 “전략 앞세워 對與 공략”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날이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김동철, 우윤근, 전병헌 후보 가운데 그 누구도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구도여서 결선 투표까지 가야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지지 호소에 나서고 있다.

우선, ‘버럭 동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강단 있는 정치력과 함께 당내 화합을 통해 민주당의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외 투쟁의 동력은 당의 화합에서 나온다고 당내 계파 갈등을 치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책임자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인 관계가 원만, ‘협상파’로 분류되고 있는 우윤근 의원은 ‘진

정성’을 무기로 효과적인 대외 협상 및 투쟁에 나서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거대 여당을 상대로 협상과 투쟁을 해온 경험도 내세우는 강성 중 하나다.

전병헌 의원은 ‘전략룡’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문방위 간사로서 미디어법 투쟁의 선봉에 서고, 정책위의장으로 6·2 지방선거의 승리에 일조했다는 점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반적인 관세가 엇비슷한 상황”이라며 “현재 관세대로 간다면 결국 결선투표에서 승부가 갈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원내대표 경선레이스 본격화

이 “계파초월” 최 “黨靑소통” 강조

새누리당 이주영, 최경환 의원이 8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4선의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러닝메이트인 장운석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출마선언을 했다.

이 의원은 출마 회견에서 “정책위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장운석은 대선공약 실천의 핵심인 정책과 예산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적임자”라며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는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계파 초월의 합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선의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러닝메이트이자 정책위의장 후보인 김기현 의원과 함께 기

사회견을 하고 출마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집권 초반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며 “대통령과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당·정·청간 모든 문제를 응공로 속에 녹여내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친박(친박근혜)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당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최 의원은 ‘원조 친박’, 대선기획단장 출신의 이 의원은 ‘신(新) 친박’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1주일 동안 후보심사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15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의 힘?

보좌진 채용 공고 이틀만에 지원자 90명 몰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함께 일할 보좌진 공채에 나서자 이틀 만에 90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8일 오전까지 4급 보좌관 모집에는 34명, 인턴 모집에는 56명이 지원서를 냈으며 마감이 9일까지여서 최종 지원 인원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보좌진 채용 공고가 내

면 모집기간이 2주 정도고 지원자도 평균 20~3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의원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지원자 중에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 출신은 물론 진보 정당과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초 면접 심사를 거쳐 보좌진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

‘이용섭의 소회’

“분열·갈등 벗고 하나 되는 호남정치 앞장”

지난 4일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패배한 이용섭 의원은 8일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호남 정치권이 하나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경선을 위해 뛰는 것

이 재미있었고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며 “비록 민주당 살리기와 호남 정치력 복원을 위한 1차 도전은 실패했지만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강기정 의원과 단일화에 대해 “너무 늦게 됐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강 의원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선 패배 원인에 대해 이 의원은

“최악의 민주당을 부활시켰다는 의지와 자신감으로 출마했지만 준비가 부족했으며 세력교체론과 대선책임을 들고 나온 김한길 대표 쪽과 대결 구도가 불리하게 전개됐다”며 “또 호남정치인들이 호남 정치력 복원이라는 명분보다 실리와 인연에 따라 제 갈 길을 간 때문에 결집을 이끌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나아가 “호남 정치력을 복원하고 호남인들의 소의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인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호남 발전과 시도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nh합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총판 TEL.1577-8905 019-624-237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

NPL(부실채권)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 비법 배우면서 투자
- 실전 사례 교육
- 1인 1물건 추천
- 단독/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1,100만원
- 문의 010-3605-5000